

국내 미술 연구자의 특성 및 협업 패턴 분석: KCI 등재지 대상 통시적 연구

이 다 니 엘 *

김 태 하 **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전공 조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Authorship and Collaboration Patterns of Korean 'Art' Research:
Convergence Analysis based on KCI-Accredited Journals

Lee, Danielle *

Kim, Taeha **

*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School,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Business School,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Kim, Taeha Kim taehakim@gmail.com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40(3)_Regular article or full paper

* Contribution : 2020.08.00_Examination : 2020.09.00_Revision : 2020.09.00_Publication decision : 2022.06.30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논문의 범위

1.3 연구 방법

II. '미술' 연구자 수와 논문별 분포

III. '미술' 연구자의 협업 패턴

IV. '미술' 연구자의 전문 연구 분야 분석

V. 결론

Reference

Endnote

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volume of relevant articles and active participations of researchers, the importance of domestic 'Art' research is obvious. However, efforts to grasp the overall trend of domestic 'Art'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on some limited subjects from restricted perspectiv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verall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Art' in Korea with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es mainly in the perspectives of author properties and the pattern of collaborat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to analyze the authorship and collaboration pattern of the Korean 'Art' research, 6,905 articles published in 25 KCI-accredited journals from 2004 till 2019 and the detailed records about 4,190 authors of the articles served the context of this study. As the results, an average of 447 authors participated in the study of 'Art' annually, and although collaboration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5, 80 percent of the domestic 'Art' papers are written by sole authors. Other fields of study except 'Art' field, in which Korean 'Art' researchers published the most papers, are 'Design,' 'Education,' and 'History.' Besides, 'Art' researchers have their research expertise in these fields along with their expertise connected to 'Ar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one of the early endeavors to analyze the overall trend of 'Art' research in Korea in terms of author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patterns, and to analyze large-scale samples as subjects of research.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연 국내 ‘미술’ 관련 연구자의 저작 활동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미술’ 연구는 ‘예술학’ 내의 여러 세부 학술 분야 중에서도 연구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미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학술적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그 연구들은 일부 한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편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하여 국내 ‘미술’ 연구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미술’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자 분포와 협업 패턴,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분야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KCI 등재지에 출간된 총 6,905편의 ‘미술’ 관련 논문과 그 논문을 작성한 4,190명의 저자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균 446.8명의 저자가 ‘미술’ 연구에 참여하였고, 2015년 이후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9년까지 국내 ‘미술’ 논문의 80%가 단독 저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일 정도로 아직 협업에 의한 저작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둘째, 95%의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국내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 85%가 넘는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한 ‘미술’ 외의 타 학문 분야는 ‘디자인’, ‘교육학’, ‘역사학’ 순이다. 이는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학술 분야를 ‘디자인’, ‘교육학’, ‘역사학’의 분야와 결합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미술’의 연구 동향을 저자 특성과 협업 패턴 측면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자,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지난 15년여간 발표된 모든 ‘미술’ 논문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Key Words

Art (미술), Convergence Analysis (융복합 분석), Bibliometric Analysis (계량서지학 분석), Author Characteristics (저자 특성), Collaboration Pattern (협업 패턴)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미술’ 연구는 2004년 1월에 ‘미술사연구,’ ‘미술사학,’ ‘미술사학연구’ 등 여섯 개의 학술지에 출간된 94편의 논문이 처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에 등재된 이후로 매년 평균 20%씩 성장하여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연평균 432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¹⁾. 이 수치에 따르면 ‘미술’ 학문 분야는 KCI ‘예술체육학’ 대분류 내의 12가지 세부 분야 중 ‘체육학,’ ‘디자인’학과 함께 연구의 규모가 가장 크다²⁾. 국내 ‘미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만큼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요약은 [표-01]과 같다.

[표-01]은 국내 ‘미술’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사전 연구 중 특히 어떤 측면에서 주로 분석하였는지를 요약하였다. 이들 사전 연구 중 거의 모든 논문이 특정 주제 - 예를 들어 ‘미술교육’ - 에 대해 편향되어 있어 국내 ‘미술’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초점도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 ‘연구 유형’ 등 친편 일률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경아, 조형숙, 김명정 (2018)은 유아 대상 전통 미술 교육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9년간 발표된 59편의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였고 그 내용 및 연구 방법을 분석

하였다³⁾. 정수진 (2019)도 유아 대상 미술 감상 교육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려고 관련 학술논문 80편을 분석하였고 그 연구대상, 연구 유형,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⁴⁾. 예외적으로 임경진 (2014)은 ‘전통미술문화교육’에 관한 논문 156편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의 특성으로 그 소속 기관 및 직책, 논문당 저자 수를 알아보았다⁵⁾. 이 논문은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비교적 소수의 표본을 활용하였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동향을 파악한 유의미한 연구이다. 또한 Lee (2020)도 그 분석의 초점을 저자의 특성과 저자 간 협업의 패턴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내 ‘예술체육학’의 세 가지 세부 분야 - ‘체육학,’ ‘디자인,’ ‘미술’ - 간의 패턴을 비교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미술’ 연구자들만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⁶⁾.

따라서 국내 ‘미술’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의 초점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논문은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미술’ 관련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특성과 협업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과연 국내 ‘미술’ 관련 연구자의 저작 활동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조사 기간인 200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학술지와 연도별로 몇 명인가?’, ‘가장 많은 연구자가

[표-01] 국내 ‘미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

기존 연구	분석의 초점	표본 크기
강주희, 이지연, 2019 ⁷⁾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 표본 선정 방법, 현장 활용방안을 분석	학술지 논문 82편
구보경, 2014 ⁸⁾	연구주제, 방법론 측면에서의 ‘미술관 교육’을 분석	학술지 논문 241편
김경아, 조형숙, 김명정, 2018 ⁹⁾	‘유아대상 전통미술 교육’에 대한 연구 규모, 주요 연구주제, 연구 방법론을 분석	59편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김선아, 박진희, 이현정, 정유진, 2016 ¹⁰⁾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해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도출하여 계산함.	학위 논문 5편과 학술지 논문 75편
노용, 홍선희, 2005 ¹¹⁾	‘미술교육’의 연구 규모, 연구 형태, 연구 영역, 주요 연구 주제를 분석	학술지 논문 666편
박명옥, 2018 ¹²⁾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STEAM)’ 관련 논문의 출간 연도, 분석 방법론, 연구 대상, 주요 연구주제 등을 분석	학술지 논문 111편
박은덕, 2006 ¹³⁾	‘미술교육’에 관해 연간 출간 논문 수와 연도별 연구 경향을 분석	학술지 논문 684편
심효진, 정호희, 2014 ¹⁴⁾	‘미술관 교육’에 대해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개수와 연구 형태에 따른 연구주제의 비교,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분석	학위 논문 255편과 학술지 논문 86편
이경진, 이상수, 2017 ¹⁵⁾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 (STEAM)’에 관해 연구별 출간 논문과 연구주제, 연구 내용, 연구대상, 분석 방법론을 연구	학술지 논문 154편
임경진, 2014 ¹⁶⁾	연구 규모, 연구자들의 특성, 중요 연구 주제 측면에서의 ‘전통미술 및 문화교육’을 분석	학술지 논문 156편
전효훈, 오지영, 2019 ¹⁷⁾	‘유아미술’에 관한 주제, 내용, 대상 유아 집단, 분석 방법론 등을 파악	학술지 논문 351편
정선희, 임양금, 안진경, 2009 ¹⁸⁾	‘유아대상 미술교육’의 내용, 연구대상, 표본 수집 및 분석의 방법을 파악	학술지 논문 61편
정수진, 2019 ¹⁹⁾	연도 및 학술지별 연구 규모, 연구대상, 연구 형태, 주요 내용 측면에서 ‘유아대상 미술 감상’관련 논문을 분석	학술지 논문 80편
현은영, 임한빛, 김정현, 2020 ²⁰⁾	‘시각 장애 아동 대상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해 중요 키워드를 도출	학술지 논문 6편
Lee, 2020 ²¹⁾	국내 ‘미술’ 연구자의 일반적인 특성 (즉, 연구자 수, 소속 기관 및 Top 연구자,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협업 패턴을 분석	학술지 논문 6,449편

참여하고 있는 국내 ‘미술’ 관련 학술지는 무엇이며, 가장 개방성이 높거나 낮은 학술지는 무엇인가?’, ‘국내 ‘미술’ 연구에서 단독 저자로 작성된 논문과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의 비율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미술’ 연구의 협업 패턴은 증가하였는가?’, ‘국내 ‘미술’ 연구에서 국가별 및 기관별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지막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논문을 출간한 ‘미술’ 외의 학술 분야 및 학술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들은 어떤 ‘미술’ 외 어떤 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미술’ 연구는 어떤 타 학문 분야와 결합하여 연구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학술지와 논문, 연구자 수를 소개했다. 각 학술지 및 논문별 연구자의 저작 패턴을 분석하고 ‘미술’ 연구자들의 협업 패턴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논문을 출간한 타 학술 분야와 ‘미술’ 분야 외의 학술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학’ 외에 어떤 전문 연구 분야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미술학’과 관련 깊은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2 논문의 범위

국내 ‘미술’ 연구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협업 패턴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본 논문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술지와 논문을 KCI 등재지를 위주로 수집하였다. 이는 ‘KCI 등재후보지’나 ‘기타 학술지’를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인된 품질의 학술논문을 본 논문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 논문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KCI의 학문 분류 중 ‘미술’에 속하는 모든 학술지와 KCI가 제공하는 인용 정보를 통해 다른 학문 분류 중 ‘미술’과 관련이 깊은 학술지를 우선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중 언급하였듯이, KCI에 등재된 적이 있는 학술지만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KCI가 주기적으로 색인된 학술지의 등급을 평가하고 그 품질의 등락에 따라 새로운 등급을 부여한다는 사실²²⁾에 따라 각 학술지가 ‘KCI 등재지’ 등급을 유지하는 동안에 출간한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도자학연구’는 2015년 1월에 KCI 등재지가 되었지만, 2018년 12월에 등재후보지로 등급이

변경되었고 일 년 후에는 ‘기타 학술지’로 다시 변경되었다. 따라서 해당 ‘한국도자학연구’ 학술지 내의 논문 중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출간된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KCI 등재지’에 선정된 후 본 논문의 데이터 수집 기간인 2020년 2월까지 그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학술지는 ‘KCI 등재지’에 선정된 시기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간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수집된 논문은 200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5개 학술지에 출간된 6,905편의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 6,905편의 연구대상 논문을 쓴 저자는 4,190명이었고 학술지와 연도별 출간 논문 수와 참여 연구자 수는 [표-02]와 같다. 분석의 대상인 25개 학술지 및 6,905편의 논문에 관한 상세 정보 (논문의 제목, 학술지명, 출간 연도, 키워드, 저자 목록 등)는 KCI OpenAPI²³⁾를 이용하여 자동 수집하였다. 4,190명 저자에 대한 상세 정보도 KCI OpenAPI를 통해 별도로 자동 수집하였는데 그 정보는 저자의 소속 기관, 저자의 역할 (제 1저자인지 아닌지) 등이었다. 특히, 저자의 전체 출간 논문목록과 그 상세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여 ‘미술’ 분야의 연구자 등은 ‘미술’ 외에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출간하는지 살펴보았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술’ 연구자의 특성 및 협업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 (Bibliometric analysis method)을 선택하였다. 즉, 여러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및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를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01>과 같이 여러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함께 학술지와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고, 학술지별 단독 저자의 논문 및 협업 논문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독 저자의 논문이 많은 학술지와 협업 논문이 많은 학술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가 국내 ‘미술’ 연구에 참여하는 정도를 계산하여 전체 ‘미술’ 연구 및 각 ‘미술’ 관련 학술지의 연구 개방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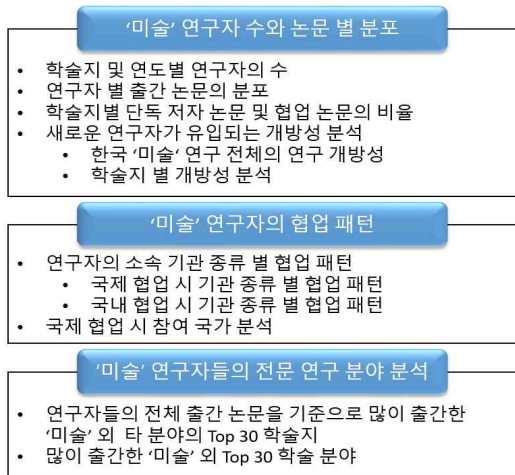
[표-02] 국내 '미술' 관련 학술지의 연도별 출간 논문 수와 참여 저자 수 (괄호 안의 숫자가 참여 저자 수를 나타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좌미술사	-	19 (17)	54 (47)	21 (17)	20 (16)	25 (19)	24 (18)	33 (26)	23 (21)	24 (20)	24 (18)	23 (22)	16 (16)	24 (19)	23 (17)	19 (17)
미술문화연구	-	-	-	-	-	-	-	-	-	-	-	-	-	-	-	13 (13)
동양미술사학	-	-	-	7 (7)	9 (9)	8 (8)	12 (12)	7 (7)	10 (10)	17 (17)	6 (6)	32 (29)	10 (10)	15 (15)	13 (12)	7 (7)
동양예술	-	-	-	-	-	-	-	-	36 (34)	45 (42)	45 (44)	35 (38)	44 (47)	45 (48)	46 (46)	62 (64)
미술과 교육	-	-	-	-	-	-	-	-	-	-	-	28 (25)	28 (27)	28 (27)	28 (31)	28 (28)
미술교육논총	-	-	41 (45)	40 (53)	35 (38)	32 (41)	51 (63)	37 (45)	39 (49)	36 (50)	38 (49)	32 (47)	36 (54)	28 (39)	34 (48)	34 (53)
미술사연구	12 (14)	14 (14)	12 (12)	13 (13)	13 (13)	15 (20)	8 (8)	16 (16)	17 (17)	16 (16)	10 (10)	12 (12)	15 (16)	15 (17)	11 (15)	11 (11)
미술사와 시각문화	-	-	-	-	10 (10)	10 (10)	11 (11)	10 (11)	10 (10)	11 (11)	14 (14)	13 (12)	14 (14)	16 (16)	14 (14)	16 (16)
미술사학	12 (12)	14 (14)	13 (13)	13 (13)	13 (13)	12 (12)	15 (15)	15 (15)	15 (15)	14 (14)	15 (15)	23 (23)	20 (21)	16 (17)	24 (23)	20 (20)
미술사학보	-	-	22 (22)	14 (14)	23 (23)	19 (19)	24 (24)	14 (14)	20 (19)	17 (19)	17 (18)	20 (20)	21 (21)	19 (19)	22 (22)	21 (22)
미술사학연구	14 (14)	18 (18)	30 (30)	25 (25)	21 (21)	19 (19)	30 (32)	21 (21)	16 (17)	25 (25)	18 (18)	27 (28)	23 (23)	26 (29)	25 (28)	30 (32)
미술이론과 현장	-	-	-	-	-	-	-	13 (13)	15 (16)	16 (16)	17 (16)	15 (16)	15 (15)	15 (16)	16 (17)	15 (17)
미술자료	-	-	-	-	-	-	-	-	-	-	-	-	-	-	10 (10)	18 (19)
불교미술사학	-	-	-	-	-	-	-	-	-	-	-	9 (9)	13 (15)	14 (15)	9 (9)	36 (37)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8 (18)	17 (17)	9 (9)	20 (20)	23 (23)	24 (24)	20 (20)	20 (21)	21 (21)	25 (25)	21 (21)	22 (22)	22 (23)	21 (21)	18 (18)	18 (20)
서예학연구	-	-	-	-	-	-	-	-	23 (21)	25 (25)	19 (17)	26 (25)	21 (19)	22 (20)	21 (18)	20 (20)
조형교육	21 (20)	26 (25)	26 (33)	30 (36)	29 (34)	37 (50)	35 (48)	25 (35)	28 (33)	46 (63)	51 (55)	43 (54)	42 (60)	34 (45)	42 (55)	35 (44)
조형디자인연구	-	-	-	-	-	-	-	-	-	-	-	49 (75)	55 (83)	56 (75)	64 (96)	62 (89)
조형미디어학	-	-	-	-	-	58 (59)	98 (96)	96 (110)	97 (109)	95 (99)	104 (98)	128 (140)	127 (135)	111 (116)	122 (127)	99 (108)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7 (18)	16 (16)	16 (16)	12 (13)	14 (14)	14 (15)	14 (14)	19 (19)	15 (15)	17 (18)	23 (24)	19 (20)	17 (18)	15 (15)	21 (22)	27 (30)
한국도자학연구	-	-	-	-	-	-	-	-	-	-	-	23 (35)	32 (42)	29 (46)	16 (26)	-
한국색채학회논문집	-	-	-	-	-	-	37 (55)	31 (63)	38 (63)	41 (54)	63 (90)	59 (95)	46 (68)	42 (63)	40 (56)	29 (55)
현대미술사연구	-	-	-	17 (17)	15 (15)	18 (17)	20 (20)	21 (21)	18 (16)	22 (22)	19 (20)	21 (22)	20 (21)	16 (20)	20 (23)	16 (17)
현대미술학 논문집	-	-	-	-	-	-	8 (8)	17 (15)	12 (12)	10 (10)	9 (10)	13 (13)	9 (10)	15 (15)	8 (10)	12 (12)
美術史論壇	-	-	-	-	20 (19)	22 (23)	21 (21)	18 (16)	19 (17)	20 (23)	18 (18)	14 (14)	21 (21)	22 (22)	18 (17)	19 (17)
총합	94 (92)	124 (115)	223 (210)	212 (214)	245 (225)	313 (313)	428 (427)	413 (445)	472 (478)	522 (526)	531 (520)	685 (744)	667 (730)	644 (674)	665 (715)	667 (721)

두 번째로 '미술' 연구자의 협업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협업의 형태를 소속 기관의 종류와 나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 분석으로 '1.2 논문의 범위'에서 수집한 각 '미술' 연구자의 전체 논문목록을 바탕으로 개별 '미술' 연구자가 논문을 많이 출간한 '미술' 외 타 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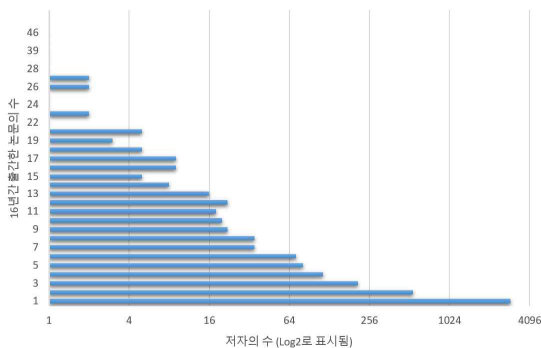
분야와 타 학문 분야 내의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그림-01> 연구 단계별 분석내용

II. ‘미술’ 연구자 수와 논문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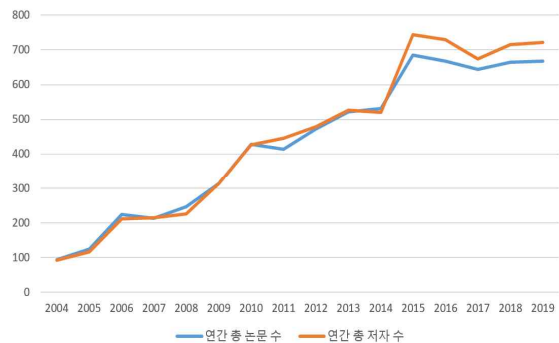
저자에 관한 첫 번째 분석으로 [표-02]와 같이 학술지와 연도별 ‘미술’ 관련 연구자 수를 살펴보았다. [표-02]에 보면 학술지별 논문 수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수도 나타난다. 국내 ‘미술’ 연구에는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2004년부터 16년간 4,19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연평균 참여 저자는 446.8명($\sigma=230.0$ 명)이었다. 약 4,200여 명의 개별 저자가 이 16년의 기간 동안 국내 ‘미술’ 관련 연구에서 각각 몇 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02>와 같다. 70%에 해당하는 2,940명의 저자가 단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3%에 해당하는 546명과 5%에 해당하는 210명이 각각 두 편과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에 해당하는 379명의 저자가 5편 이상의 ‘미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4,200여 명의 저자 중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한 저자는 16년간 4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02> 각 저자별 출간한 논문의 수

전체 연구대상 논문 6,905편 중 80.2%인 5,535편이 단독 저자가 출간한 논문이고 한 편의 논문에 가장 저자가 많은 경우는 13명이었다. 그리고, 연도 별로 ‘미술’ 연구에 참여한 논문별 저자 총수의 변화를 논문의 총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0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의 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자 총수도 따라서 증가하였고, 두 선은 매년 거의 겹친 상태로 분포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총저자 수가 총 논문 수보다 커진다. 다시 말해, 두 선이 거의 겹쳐졌던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출간되는 ‘미술’ 논문의 수가 저자의 수와 거의 같았으며 이 기간에 출간된 논문들은 단독 저자에 의해 많이 쓰였다. 하지만 2015년을 지나면서 협업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는 경향이 생겼음을 볼 수 있다.



<그림-03> 연간 총 논문 수 대비 연간 총 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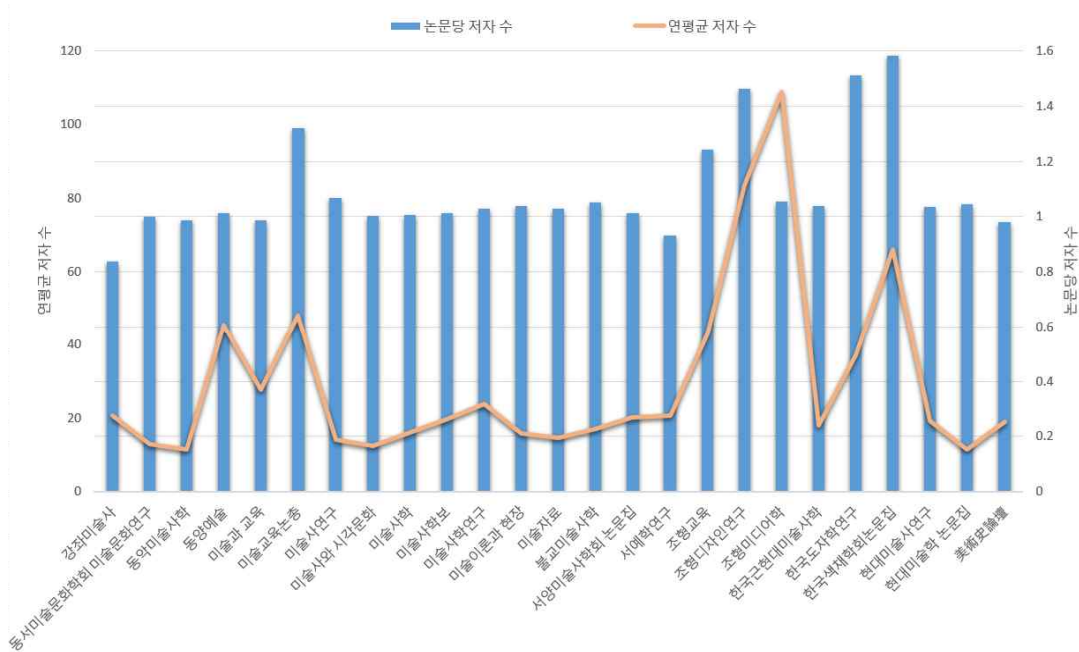
[표-02]에 따르면 매년 가장 많은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인 ‘조형미디어학 (108.8명),’ ‘조형디자인연구 (83.6명),’ ‘한국색채학회논문집 (66.2명),’ ‘미술교육논총 (48.0명),’ ‘동양예술 (43.4명)’ 순으로 참여하는 저자의 수도 많았다. 그리고 각 논문당 저자의 수를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그림-04>와 같다.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58명),’ ‘한국도자학연구 (1.51명),’ ‘조형디자인연구 (1.46명),’ ‘미술교육논총 (1.32명),’ ‘조형교육 (1.24명)’ 순으로 논문당 저자의 수가 많았다. 즉, 이들 학술지에서 다른 ‘미술’ 관련 학술지들과 비교해 협업으로 작성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총 25개의 학술지 중 5개의 학술지는 논문 당 저자의 수가 1보다 작았고 나머지 20개는 1 이상의 논문 당 저자 수를 가지고 있었다. 전자의 5개 학술지는 한 저자가 두 편 이상의 논문을 같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같은 저자가 한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출간하는 비율은 학술지 별로 어떻게 될까? 바꾸어 말하면, 한 학술지에서 이전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가 새로이 유입되어 논문을 발표하는 비율

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학술지의 개방성을 계산하여 답할 수 있다. 개방성 (Openness)이란 특정 학문 분야 혹은 특정 학술지가 얼마나 새 저자에게 개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Cabot 등 (2018)이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의 개방성을 분석하기 위해 처음 제안하였다²⁴⁾. 이를 응용하여 Lee (2020)도 국내 ‘예술체육학’ 분야의 개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Lee (2020)에서 계산된 개방성은 한 학술지에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의 비율을 계산하였다²⁵⁾.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좀 더 개방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였다. 25개 연구대상 학술지 중 1개 연도만 KCI에 등재되어 개방성을 계산할 수 없었던 ‘동서미술문화학회 미술문화연구’를 제외하고 학술지 별로 각 출판 연도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자의 수를 당해 년의

총 저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그 비율의 평균값을 해당 학술지의 개방성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 ‘미술’ 연구의 전체 개방성 평균은 61.6%이다. 즉, 국내 ‘미술’ 연구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 약 62명은 그들의 논문 한 편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미술’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연도별 국내 ‘미술’ 연구의 개방성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05>와 같다. 2010년까지 개방성의 증가와 감소가 크게 변동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꾸준히 50 ~ 60%의 개방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지별 개방성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림-04>와 같다. 학술지 중 가장 개방성이 높은 학술지는 ‘미술사학 (80.2%),’ ‘불교미술사학 (79.4%),’ ‘미술사학연구 (77.3%),’ ‘미술사연구 (76.9%),’ ‘미술이론과 현장 (75.8%)’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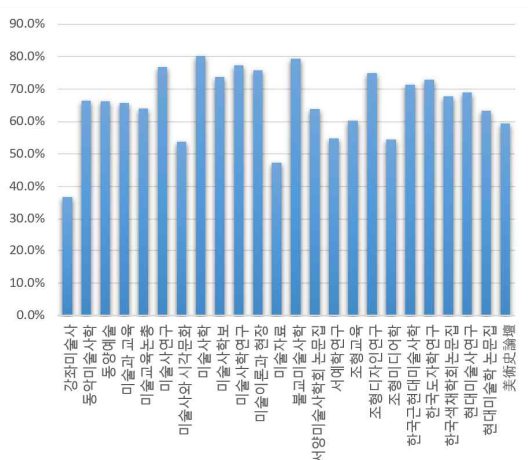
<그림-04> 학술지별 논문 한 편당 저자 수



<그림-05> 국내 ‘미술’ 연구에서의 개방성 변화 추이

III. ‘미술’ 연구자의 협업 패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논문 6,905편 중 5,535편이 단독 저자가 출간한 논문이었으니 나머지 1,370편은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이다. 따라서 이들 협업으로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미술’ 연구자들의 협업 패턴을 저자의 소속 기관²⁶⁾과 소속 기관의 종류, 나라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각 저자의 소속 기관이 무슨 종류이고 그 기관이 위치한



<그림-06> 학술지별 개방성

나라가 어디인지 정성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coding frame을 이용하여 수집, 정의하였다²⁷⁾. 특히 소속 기관의 종류는 기존의 기관 분류²⁸⁾에 따라 총 8가지 - ‘기업/기타기관,’ ‘대학,’ ‘박물관,’ ‘병원,’ ‘연구소,’ ‘정부/행정기관,’ ‘초중고교,’ ‘학회/협회’ - 로 나누었다. 그리고 같은 저자여도 출간한 논문에 따라 소속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종류 및 나라는 각 논문의 개별 저작 활동 (authorship)별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총 4,190명의 연구자가 논문 6,905편을 작성하는 저작 활동이 8,699건이었다.

이들 협업 패턴의 분석은 우선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과 나라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같은 기관 내의 협업 패턴을 분석하였고, 서로 다른 기관 간의 협업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미술’ 연구자들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 어떤 기관과 협업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업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저자의 저작 활동별 소속 기관 및 나라를 살펴보면 총 저작 활동 건수 중 85.1% (7,403건)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논문을 출간한 경우이고, ‘연구소 (4.5%; 395건),’ ‘박물관 (3.6%; 314건),’ ‘초중고교 (2.2%; 193건)’ 순으로 ‘미술’ 연구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95% (8,270건)의 저작 활동이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 ‘미술’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 중 해외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미국 (1.3%; 113건),’ ‘일본 (1.2%; 106건),’ ‘중국 (0.6%; 49건)’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하지만 그중 0.9%인 81건의 저작 활동은 그 소속 기관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협업 패턴은 어떻게 될까? 협업으로 작성된 1,370편 중 61.2%인 839편은 같은 소속 기관 내의 협업으로 작성된 논문이었다.

그리고 그중 799편은 같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협업하여 작성한 논문이고, 15편은 같은 박물관, 14편은 같은 연구소, 7편은 같은 학회/협회에서 서로 협업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 중 7편의 논문은 한국어 아닌 미국 (2편), 중국 (2편), 일본 (1편), 프랑스 (1편), 호주 (1편)에 위치한 소속 기관의 연구자들만이 서로 협업하여 한국의 ‘미술’ 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한 경우였다.

1,370편 중 나머지 531편의 논문은 서로 다른 기관의 저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다. 이 중 370편은 2개의 기관, 110편은 3인의 기관, 51편은 4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작성한 논문이다. 531편 중 278편은 서로 다른 대학 간의 협업이고, 247건은 대학과 다른 종류의 소속 기관 간의 협업, 6건은 대학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소속 기관간의 협업이었다.

대학과 다른 종류의 기관이 협업한 경우, 그 기관의 종류를 알 수 없는 18편을 제외하고,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연구자와 협업하는 경우 (77편)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과 연구소 간의 협업이 59편, 대학과 기업/기타기관과의 협업이 44편, 대학과 박물관과의 협업이 14편 순이었다. 대학을 제외한 기관 간의 협업으로 출간된 논문 6편 중 박물관과 연구소 간의 협업으로 작성한 논문이 3편, 정부/행정기관이 박물관 혹은 학회/협회와 협업한 경우가 3편이었다.

다음으로 국제 협업의 패턴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협업하여 출간한 논문 531편 중 그 소속 국가를 알 수 없는 19편을 제외하고 한국의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협업한 연구자들은 일본 연구자 (15편)였고, 미국 (8편), 중국 (7편), 프랑스 (1편), 독일 (1편) 순이었다. 다시 말해, 국내 ‘미술’ 연구 6,905편 중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 간 협업까지 포함하여 국제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은 39편에 불과하다. 협업을 통해 작성된 논문이 아닌 단독 저자로 출간된 논문 중 293편이 외국 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출간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내 ‘미술’ 연구 중 4.8%의 논문 (332편)이 외국 기관의 연구자가 협업 혹은 단독으로 출간한 결과물이다.

IV. ‘미술’ 연구자의 전문 연구 분야 분석

마지막 분석으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관련 연구 분야 외에 주로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와 타 연구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영역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내 ‘미술’ 연구가 어

던 타 학문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 저자인 4,190명의 모든 출간 논문 및 그 상세 정보를 KCI Open-API를 통해 자동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미술’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1975년부터 2020년 초까지 총 15,557편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해당 논문들은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기타 학술지의 등급과 상관없이 KCI에 색인된 해당 저자의 모든 논문을 포함한다. 우선 가장 많이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Top 30을 살펴보면 [표-03]과 같다.

[표-03]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논문을 가장 많이 출간한 ‘미술’ 외 분야의 Top 30 학술지

학술지	세부 연구분야	빈도 (논문 수)
기초조형학연구	예술일반	4.9% (76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디자인	2.2% (350)
미술교육연구논총	교육	2.2% (336)
한국디자인포럼	디자인	2.1% (326)
디지털디자인학연구	디자인	2.1% (319)
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9% (293)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2% (194)
브랜드디자인학연구	디자인	1.2% (19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교육	1.2% (18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학제간연구	1.1% (172)
문화예술교육연구	감성과학	1.1% (170)
보존과학회지	일반생명과학	1.0% (162)
미학예술학연구	기타 예술체육학	1.0% (16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건축공학	1.0% (156)
디자인지식저널	디자인	1.0% (155)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간연구	1.0% (153)
복식	생활과학	1.0% (151)
디지털융복합연구	과학기술학	0.9% (14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디자인	0.9% (139)
美學(미학)	철학	0.8% (125)
유아교육학논집	교육	0.7% (116)
문화재	역사	0.7% (103)
디자인융복합연구 (구.인포디자인이슈)	디자인	0.7% (102)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디자인	0.6% (98)
한국외상디자인학회지	의상	0.6% (97)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디자인	0.6% (97)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미용	0.6% (96)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출간한 타 분야의 학술지는 ‘기초조형학연구 (765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350편),’ ‘미술교육연구논총 (336편),’ ‘한국디자인포럼 (326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19편)’ 순이다. 디자인, 공공디자인과 같은 공간,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기호학 등에 관한 논문이 많이 출간된 ‘기초조형학연구’는 ‘예술일반’으로 분류되었지만, ‘디

자인’과 관련이 깊고, 다른 Top 10 안에 드는 학술지들도 대부분 ‘디자인’ 혹은 ‘교육학’에 관련된 학술지였다. 그 외에도 공학, 과학, 철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정 학술지를 넘어서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연구한 타 학문 분야를 좀 더 알아보았고 그 Top 30 학문 분야가 [표-04]와 같다.

[표-04]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논문을 가장 많이 출간한 ‘미술’ 외 Top 30 학문 분야

‘미술’ 외 학문 분야	빈도 (논문 수)
디자인	17.0% (2,641)
교육	13.7% (2,137)
역사	7.9% (1,228)
예술일반	6.8% (1,054)
기타 인문학	5.0% (779)
학제간연구	4.3% (671)
생활과학	4.3% (670)
철학	2.8% (441)
기타 예술체육학	2.2% (349)
한국어와문학	2.2% (346)
감성과학	2.0% (304)
건축공학	1.9% (294)
의상	1.6% (243)
경영학	1.3% (205)
일반생명과학	1.3% (201)
미용	1.3% (201)
재료공학	1.2% (187)
과학기술학	1.2% (184)
심리학	1.1% (169)
불교학	1.0% (162)
컴퓨터과학	0.8% (125)
종교학	0.7% (104)
공학일반	0.7% (104)
신문방송학	0.6% (99)
중국어와문학	0.6% (94)
문헌정보학	0.5% (85)
기계공학	0.5% (85)
불어와문학	0.5% (78)
무용	0.5% (76)
음악	0.5% (72)

[표-03]의 타 분야 학술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한 ‘미술’ 외의 타 학문 분야는 ‘디자인 (2,641편),’ ‘교육학 (2,137편),’ ‘역사학 (1,228편)’이 가장 많았고, ‘예술일반 (1,054편),’ ‘기타인문학 (779편),’ ‘학제간 연구 (671편),’ ‘생활과학 (670편),’ ‘철학 (441편)’ 순이었다. 특히, 같은 예술 분야인 ‘디자인,’ ‘예술일반,’ ‘의상,’ ‘미용,’ 무

용, '음악학'까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감성과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과학기술학,' '컴퓨터학,' '기계공학'과 같이 공학 분야에도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고, '한국어외문학,' '중국어외문학,' '프랑스어외문학,' '심리과학,' '불교학,' '종교학' 같은 인문학도 국내 '미술'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한 학문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학문 분야가 한국의 '미술'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국내 '미술'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연구자의 특성과 협업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25개 '미술'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6,905편 논문과 그 저자 4,190명을 분석하였다. 2004년 여섯 개의 학술지가 KCI에 등재된 이후로 연평균 446.8명의 저자가 '미술' 연구에 참여하였고, 전체 분석 대상 저자의 70%가 단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사 기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9%였다. 그리고 연도별로 논문당 저자 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국내 '미술' 논문의 80%가 단독 저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일 정도로 아직 협업에 의한 저작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도 50%는 한국 내의 같은 소속 기관에서 작성한 논문이다. 그리고 95%의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국내 기간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 85%가 넘는 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미술' 연구 중 4.8%의 논문 (332편)이 외국 기관의 연구자가 협업 혹은 단독으로 출간한 결과물이다. 국내 '미술' 연구자들은 '미술' 외에 '디자인' '교육학,' '역사학' 순으로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고 이는 '미술' 연구자들이 '미술' 학술 분야 외에 연구적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는 점을 나타낸다.

한정적인 '미술' 관련 주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연구 경향을 분석하던 기존의 사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6,900여 편의 '미술' 전체 논문이 어떠한 연구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미술' 연구에 한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적이 없는 저자의 특성과 협업 패턴을 분석한 초기 연구이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인정하는 바이다. 기존 계량서지학 연구에서 많이 시행되어 온 저자 네트워크를 통한 저자마다의 위상학적 특성 분석은 지면상의 한계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다음 연구의 내용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각 연구자의 저작 활동에 관한 기록을 KCI 시스템을 위

주로 수집한 한계도 인정한다. 즉, 연구자들이 출간했을 수 있는 해외 학술지 논문이나, 서적, 보고서 등의 저작 활동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써, 국내 '미술' 연구자의 해외 연구 활동 참여 정도와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Cabot, Jordi., Izquierdo, Javier Luis Cánovas., Cosentino, Valerio, "Are CS conferences (too) closed communities?" *Commun. ACM*, 61(10), 2018.
- [2] Chon, Hyo Hoon., Oh, Jiyong, "Research trends on art in early childhood: Focusing on theses and dissertations between 2010 and 2018",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2), 2019.
- [3] Hyun, Eunryung., Im, Han Bit., Kim, Jeong Hyun,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6(2), 2020.
- [4] Im, Kyungji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Traditional Cultural Art Education: Focused on Journals",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8(2), 2014.
- [5] Jeong, Seol Hee., Lim, Yang Keum., Ahn, Jin Kyung, "A Trend Analysis of Art in Early childhood: A Review of Journals from 1998 to 2008",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2009.
- [6] Jeong, Su Ji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7(3), pp.205-225, 2019.
- [7] Kang, Joohee., Lee, Ji Yeon, "A Study on Art Gifted Education Research and Status Analysis with Suggestion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4), 2019.
- [8] Kim, Gyeong-A., Cho, Hyung Sook., Kim, Moun-Ju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Traditional Art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32, 2018.
- [9] Kim, Sunah., Park, Jinhee., Lee, Hyeonjeong., Chung, Yu Jin,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using the text mining techniqu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2), 2016
- [10] Koo, Bokyung, "Analysis of Current Research Trends in Korean Museum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8(4), 2014.

- [11] Lee, Danielle, "Bibliometric Analysis of Korean Journals in Arts and Kinesiology -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ship",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18(3), 2020.
- [12] Lee, Danielle, "Analyzing Research Productivity and Keywords of Korean 'Art' Research",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9(2), 2021.
- [13] Lee, Jong-Wook., Bak, Hye-Rin,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earchers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LIS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016.
- [14] Lee, Kyoung Jin., Lee, Sangsu,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in Arts based STEA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9), 2017.
- [15] Park, Eun-Deok, "Trend Analysis of Art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0(3), 2006.
- [16] Park, Myeong Ok,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t Based STEAM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Art Education*, 53, 2018.
- [17] Row, Yong., Hong, Sul-He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n Domestic Theses in Art Education for the Period of 7th School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19(1), 2005.
- [18] Shim, Hyo Jin., Jeong, Ok Hee, "A Review of the Study Trends of Art Museum Education in Korea", *Art Education Review*, (52), 2014.
- [19] www.kci.go.kr/kciportal/guidance/jourEvalGuidance.kci (2021.10.01)
- [20] www.kci.go.kr/kciportal/po/openapi/openApiComView.kci (2021.10.01)
-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pp.210-235, 2018.
- 4) Jeong, Su Ji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pp.205-225, 2019.
- 5) Im, Kyungji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Traditional Cultural Art Education: Focused on Journals",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pp.1-29, 2014.
- 6) Lee, D., op.cit., pp.1-14, 2020.
- 7) Kang, Joohee., Lee, Ji Yeon, "A Study on Art Gifted Education Research and Status Analysis with Suggestion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pp.255-271, 2019.
- 8) Koo, Bokyoung, "Analysis of Current Research Trends in Korean Museum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pp.123-149, 2014.
- 9) Kim, Gyeong-A., Cho, Hyung Sook., Kim, Moun-g-Jung, op.cit, pp.210-235, 2018.
- 10) Kim, Sunah., Park, Jinhee., Lee, Hyeonjeong., Chung, Yu Jin,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using the text mining techniqu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pp.203-227, 2016
- 11) Row, Yong., Hong, Sul-He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n Domestic Theses in Art Education for the Period of 7th School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pp.53-80, 2005.
- 12) Park, Myeong Ok,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t Based STEAM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Art Education*, pp.27-50, 2018.
- 13) Park, Eun-Deok, "Trend Analysis of Art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pp.75-93, 2006.
- 14) Shim, Hyo Jin., Jeong, Ok Hee, "A Review of the Study Trends of Art Museum Education in Korea", *Art Education Review*, pp.189-212, 2014.
- 15) Lee, Kyoung Jin., Lee, Sangsu,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in Arts based STEA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pp.825-832, 2017.
- 16) Im, K., op.cit., pp.1-29, 2014.
- 17) Chon, Hyo Hoon., Oh, Jiyoung, "Research trends on art in early childhood: Focusing on theses and dissertations between 2010 and 2018", *Early*

Endnote

- 1) Lee, Danielle, "Analyzing Research Productivity and Keywords of Korean 'Art' Research",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pp.303-314, 2021.
- 2) Lee, Danielle, "Bibliometric Analysis of Korean Journals in Arts and Kinesiology -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ship",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pp.1-14, 2020.
- 3) Kim, Gyeong-A., Cho, Hyung Sook., Kim, Moun-g-Ju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Traditional Art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 Childhood Education & Care, pp.85-104, 2019.
- 18) Jeong, Seol Hee., Lim, Yang Keum., Ahn, Jin Kyung, “A Trend Analysis of Art in Early childhood: A Review of Journals from 1998 to 2008”,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p.297-319, 2009.
 - 19) Jeong, S. J., *op.cit.*, pp.205-225, 2019.
 - 20) Hyun, Eunryung., Im, Han Bit., Kim, Jeong Hyun,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pp.603-613, 2020.
 - 21) Lee, D., *op.cit.*, pp.1-14, 2020.
 - 22) www.kci.go.kr/kciportal/guidance/jourEvalGuidance ce.kci (2021.10.01)
 - 23) www.kci.go.kr/kciportal/po/openapi/openApiConnView ce.kci (2021.10.01)
 - 24) Cabot, Jordi., Izquierdo, Javier Luis Cánovas., Cosentino, Valerio, “Are CS conferences (too) closed communities?” Commun. ACM, pp.32-34, 2018.
 - 25) Lee, D., *op.cit.*, pp.1-14, 2020.
 - 26) 저자의 소속기관은 KCI Open API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었다.
 - 27) *ibid.*, pp.1-14
 - 28) Lee, Jong-Wook., Bak, Hye-Rin,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earchers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LIS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p.217-242, 2016.